

초등학교원가, 상인 민원은 무섭고...어린이 안전은?

광주 봉선·용봉동 등 교통 혼잡 속 아이들 잇단 사고 '위험' 감사원 지정 독려·학부모 대책 요구에도 지자체는 무관심

광주시 남구 봉선동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4학년생 김보군은 최근 쌍용아파트 사거리의 학원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달리던 자동차의 헤드라이트에 치여 넘어졌다. 김군은 다행히 두터운 패딩점퍼를 입고 있어 타박상을 입는 데 그쳤지만, 이후 혼자서 도로를 걸을 때마다 무서워하는 등 트라우마가 생겼다고 한다.

김군 부모는 "집 근처 학원이라 걱정은 안 했는데, 아이가 사고를 당하고 나서부터 항상 불안한 마음"이라며 "방학시즌이라 학원가에 아이들이 수백명씩 오고가는 데, 우리 아들처럼 다른 아이들이 교통사고를 당하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광주시가 감사원의 지적에도 초등학교 밀집지역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단 한곳도 지정하지 않는 등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소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초등학교생을 둔 학부모들은 학원가 주변에서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빈발한다며 광주시를 상대로 대책을 요구하고 있지만 별다른 해결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특히 감사원마저도 행정자치부를 통해 광주시에 어린이 보행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초등학교 주변 도로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구분할 것을 통보했는데도, 광주시는 "주변 상인 등의 민원이 우려된다"

며 지정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감사원이 2019년 발표한 '교통약자 보호구역 등 보행자 안전관리실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초등학교)100인이상이 다니는 초등학교 주변은 학원장이 지자체장에게 요청하거나 지자체 장의 직권으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자동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 자동차의 정차나 주차 금지, 운행속도의 시속 30km 이내 제한, 이면도로의 일방통행로 지정·운영 등 어린이의 안전에 도움이 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광주에는 이 같은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이 가능한 초등학교(100인 이상)만 192곳에 이르지만, 지정된 곳은 단 한곳도 없다.

반면 서울 3곳을 비롯한 인천(13곳) 부산(3곳), 대구(1곳) 등 전국 대도시를 중심으로 초등학교 주변 20여곳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매년 확대하는 추세다.

감사원과 행정자치부도 초등학교생의 안전을 위해 광주시 등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초등학교 밀집지역 주변 도로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독려하고 있다.



방학을 맞아 초등학교 밀집지역인 광주시 남구 봉선동 학원가 주변이 학생들로 북적이고 있다.

광주시 역시 감사원과 행정자치부의 지적을 받았지만, 다소 번거로운 지정 절차와 주변 상인의 집단민원 등을 핑계로 소극적인 행정 행태를 보이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 검토를 해봤지만 현재 여건상 직권 지정은 힘든 상황으로 판단했다"며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을 위해선 지정대상시설 주변 도

로의 자동차 통행량, 주차 소요, 교통안전 시설, 교통사고 발생 현황, 어린이 통행자 수, 통행로 체계 등을 조사해야 하고 주변 상인 등의 민원발생까지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광주교통문화연구소 관계자는 "학교는 그나마 안전한 등하교를 돕는 교통안전도우미나 교사 등이 있지만, 학원

가는 아이들의 활동범위가 더 넓고 교통사고 위험도 훨씬 크다"며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함께 어린이 보호구역은 확대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광주에는 615곳의 어린이보호구역이 지정돼 있다. /글·사진=김민석 기자 mskim@

고유정 사형 구형 검찰 "극단적 인명 경시"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37)에 대해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오후 제주시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정봉기) 심리로 열린 고씨의 결심 공판에서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 고유정은 아들 앞에서 아빠(전남편)를, 아빠(현남편)앞에서 아들을 참살하는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 두 사건 모두 극단적 인명 경시태도에서 비롯된 살인으로 전혀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며 고씨에 대한 사형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전남편인 피해자 열흔에서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이 검출됐고, 의붓아들이 누군기에 의해 고의로 살해했다는 부검 결과와 바로 사건의 스토리건(결정적 증거)"이라고 강조했다.

고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수면제를 누군가에게 먹인 사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대검찰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재차 (전남편 혈액과 현남편 모발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된 과정에 대한) 사실조사를 요청했으나 일부 문건이 도착하지 않았다"며 재판 연기신청을 했다.

재판부는 결국 5분간 휴정을 한 뒤 다음 재판까지 사실조치 결과를 기다리게 결정했다.

리소에 대한 다음 공판은 다음달 10일이다. /연합뉴스

22개월 영아 밤새 홀로 방치...집에서 숨진 채 발견

광주서...친모 친구 만나고 아침 귀가, 친부도 집에 없어

20대 부부가 키우던 22개월 된 영아가 8시간 넘게 집에 홀로 방치돼 있다 침대 사이에 끼인 채 숨겨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일요일이던 지난 19일 오전 9시 30분께 광주시 서구 한 아파트에서 A(23)씨가 경찰에 "친구 부부가 키우는 아이가 죽었다"는 신고를 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침대 매트리스와 침대 틀 사이에 끼어 숨겨 있는 22개월 된 남아를 발견했다. 부검결과 사인은 질식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의 친모인 B(23)씨는 아이를 침대 위에 재운 채 밖에 나갔다가 귀가했다니 아이가 숨져 있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친모 B씨는 전날인 18일 밤 11시께 친구 A씨 등을 만나 시간을 보냈던 뒤, 다음날 오전 7시께 집에 들어왔다고 진술했다.

회사원인 친부 C(27)씨 역시 당일 집에 없었다.

숨겨 있는 아들을 발견한 친모 B씨는 함께 시간을 보냈던 친구 A씨를 집으로 불렀으며, 고반 끝에 친모 대신 A씨가 경찰에 신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20일 오전 숨진 영아에 대한 부검을 마쳤으며, 아이 장례식은 21일 치러

질 예정이다. 경찰은 사실상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부부의 신병처리를 놓고 고심 중이다.

경찰은 사건 당일 타살혐의점이 없어 일단 단순 사망사건으로 처리한 상태지만, 22개월 된 아이가 밤새 홀로 집에 방치돼 있다 사망한 점을 들어 적용 가능한 혐의가 있는 지 검토중이다.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형법제275조 유기 등치사상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117억원 횡령 골프장 회계직원 항소심 징역 9년

인터넷 도박 병합 형량 늘어

골프장에서 근무하며 117억원을 횡령해 인터넷 도박으로 탕진한 2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김태호, 양영희, 홍기만)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 등)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29)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횡령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하고 반항하지 않은 횡령액 86억 5000만원에 대한 배상명령을 내렸으며 항소심에서는 횡령과 도박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다.

재판부는 "박씨는 회사 수입·지출 업무를 전담하며 횡령했다. 범행 횡수와 기간, 규모로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이 범행으로 회사의 존립이 위태로울 정도로 재정 상태가 악화했고 회사 측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박씨가 일부나마 피해를 회복한 점, 회사 측의 자금관리 체계가 허술해 범행 장기화에 영향을 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전남 모 골프장 회계 담당으로 일하며 2018년 2월 9일부터 같은 해 12월 24일까지 116차례에 걸쳐 117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돈을 대부분 잃었다고 진술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금방 유리창 깨고 7천만원 절도 중학생 4명 긴급체포

광주광산경찰은 20일 금방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금품을 훔친 중학생 A(14)군 등 4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 등은 이날 새벽 3시 30분께 광주시 광산구 월계동 한 금방 문을 벽돌로 부수고 들어가 7000여만원 어치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다.

이들은 낮 3시에 금방을 한차례 들른 뒤 친구들을 불러 새벽시간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대법 "지자체, 오염 우려 폐기물 시설 불허 정당"

주민 거주지역과 가까운 곳에 들어서는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를 불허한 지자체단체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폐기물 재활용 업체를 운영하는 A사가 B(자치단체)를 상대로 '폐기물처리 종합재활용사업계획서'에 대한 부적합 통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A사는 2017년 2월 B군 일부 지역에 사업장폐기물과 폐합성수지·고무류 등을 재활용하는 업체 설치를 허가해달라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으나, B군은 부적합 통보를 했다. A사의 사업 예정시설로부터 300

~400m거리에 각각 180여명, 110여명의 주민이 사는 마을이 있어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먼지, 오·폐수, 소음 등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됐기 때문이다.

1·2심은 먼저나 사업 오피스가 인근 지역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없고, 폐기물을 재활용해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한다는 측면에서 공익에 기여한다는 점 등을 들어 A사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환경이 오염되면 원상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이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B군에 거주하는 주민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우려 등을 사유로 허가해달라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으나, B군은 부적합 통보를 했다. A사의 사업 예정시설로부터 300 /박진표 기자 lucky@연합뉴스

비트코인 거래 미끼 사기...4억원 든 돈가방 바꿔치기 당했다"

온라인 가상화폐(비트코인)를 싸게 팔겠다고 접근해 수억원의 거래대금만 가로챈 40대 용의자를 경찰이 추적중.

○...20일 광주광산경찰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광산구 한 모텔에서 피해자인 A씨는 비트코인을 저렴하게 판매하던 용의자 B씨와 거래를 하던 도중 4억원이 든 가방을 도난당했다는 것.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A씨는 B씨와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는데, 경찰관계자는 "B씨는 A씨가 가방에 담은 현금을 자신이 준비한 여행용 캐리어로 옮길 것을 부탁한 뒤, 미리 준비한 락같은 캐리어와 바꿔치기했다"면서 "A씨가 바꿔치기한 캐리어에는 지양강경제 4박스가 담겨 있어 B씨가 깜박 넘어갔다"고 설명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 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QR코드:법원경매정보 앱으로 접속합니다.

사건번호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원]	비고
2019타경 13399	1	화성군 동면 운봉리 1118 8503.4㎡ 제1외 창고 등 203.2㎡, 수목 반송 등 9주, 기계기 구목책장조	공장용지	4,290,595,500 4,290,595,500	일괄매각, 제1외 건물포함, 목책1수 목책함매각, 제1외 지대기계구매각 제외, [이동용임], 제 2018-124호기계구 구목책8.외3] Air Dryer 목책상도목 말은 Model :HRO-3 OHT 이나현행 'Mo del :SC1-30', 목책 2단중공장내부창 고, 목책3층방고실 , 화장실및욕실 건물포함항매
		화성군 동면 동봉리 139 [제1동] 1000㎡ 부속건물 사무실 1층196.7㎡ 2층182㎡ 부속 139 [제2동] 1900㎡	공장		
2019타경 13955	1	화성군 동면 동봉리 139 [제3동] 525㎡ 228㎡ [물건번호:1:공장및공업재단지장부제6 조기계구목책장조, 목책4등기사항전부증 명서 [건물]상 '2층공장' 이나건축물대장현 행 '1층작업장및식당, 2층사무실및욕실[기 숙사]', 집행관현황조사보고서의하면 '목책2 건물매각지업유치권판카드결여있으나 정유하지않는다', '고보고함	대 도로	8,424,200 8,424,200	일괄매각, 목책2식 채되어있는유실수 [살구나무]4주포 함매각
		영광군 법성면 삼당리 181 221㎡ 동소254.46㎡ 제1외 유실수[살구나무]4주 동소 255-2 215㎡	대 도로	8,424,200 8,424,200	일괄매각, 목책2식 채되어있는유실수 [살구나무]4주포 함매각
2019타경 14071	1	광산구 대산동 129-1 630㎡ [공유지권양은 지분3분의1전부, 공유지[김영배, 김승민]에 대하여공유자유선매수권양도[대법원2005다 1078결정참조]	대	32,375,000 32,375,000	일괄매각, 목책2장 면적78.4㎡ 이나현 행 '당중주목42.9 ㎡, 창고21.6㎡ 및 창고7.3㎡'
		광산구 삼도간산만길 3-5 78.4㎡	목책주목		
2019타경 14194	1	달양군 달양읍 객사리 127-3 415㎡	대	195,142,700 195,142,700	일괄매각, 목책1식 채된수목포함매각 , 목책2대양발전 선비매각제외
		달양군 달양읍 객사4길 12-7 66㎡ 제1외 창고 등 34.8㎡ [제1외건물포함]	주택		
2019타경 69422	1	나주시 산포면 내촌길54 59.72㎡ 부속건물 퇴비사15.3㎡ [공유지분총45분의10[단,오 윤경지분45분의6, 박재지분45분의4]각지분 전부] 제1외 창고 등 29.9㎡ [부속건물불 력조스레트지붕등, 퇴비사15.3㎡ '공부상' 덕레리210-1번지 이나현행 '덕레리215-3'에 소재함, 제1외건물중 창고블록조스레트지 붕5.4㎡ '은' 덕레리215-3'에소재함]	주택	9,080,440 9,080,440	일괄매각, 제1외 건물포함지분매각 공유자유선매수 권양도사항수1 회로제한
		나주시 산포면 덕레리 210-1 188㎡ [공유지 지분총45분의10[단,오윤경지분45분의6, 박 재지분45분의4]각지분전부]	대		